

미·일 정상회담에서 TPP 협상 타결될까?

□ 자민당 내에서 협상 반대파 증가

- 자민당 내부에는 TPP 참가에 따른 매력을 전혀 느끼지 못하겠다는 강한 반대파가 존재하여, 협상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예상
- 농림수산성의 시산에 따르면 TPP 참가로 인해 농림어업의 생산액이 3.4조 엔 감소
 - * 경산성은 TPP 불참할 경우 2020년에 GDP가 10.5조 엔, 고용이 약 81만 명 감소할 것이라는 시산을 제시하여 정부 내에서도 대립
- 자민당은 '12년 중의원 선거공약으로 '성역 없는 관세철폐를 전제로 한 협상 참가에는 반대' 한다는 입장으로 공명당과 국익을 위한 최선의 길을 모색하기로 합의
- 2월에 있을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TPP 협상 참가를 언급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내각에서도 참가를 용인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 TPP 협상에 새로운 국가가 참가할 경우 3개월 이상 절차가 필요. 따라서 3월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협상에는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에 유리한 규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5월 페루 협상에는 참가해야 함

□ 논점은 전제조건인 양보 여부

-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 정조회장은 TV 방송(13.1.6)에서 일본의 TPP 협상 참가를 지지하는 의향을 표명

- 상황에 따라 “조건이 맞지 않으면 협성과정에서 이탈할 선택지도 있다” 며 협상 내용에 따라 불참할 생각도 제시
- 다카이치는 TPP에 관한 논의를 추진하는 조직으로서 정조회에 ‘외교·경제연계조사회’를 설치, 아베 총리가 미국 방문 전에 FTA를 포함한 경제협정논점을 정리하여 방향을 제시하도록 준비 중

TPP 협상 참가에 관한 정부·자민당 간부의 발언

아베 신조 총리 (2012.11.21)	(협상 찬성) 전제조건이 해결되고 국익을 지킬 수 있으면 당연히 협상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조회장 (2013.1.6)	(찬성) 협상에 참가하면서 지켜야 할 국익은 지킨다.
호소다 히로유키 간사장 대리 (2013.1.7)	(반대) 일부러 불리한 협정에 참가할 필요는 없다.
오자토 야스히로 농림부 회장 (2013.1.8)	(반대) 반대의 입장에서 공통인식을 가지고 임한다.
다카이치 정조회장 (2013.1.9)	(찬성?) 성역 없는 관세 철폐를 전제로 하는 한 협상 참가는 의미가 없다.
아베 총리 (2013.1.13)	(입장 보류) 아직 상황 분석이 충분하지 않아 좀 더 검토해서 판단하겠다.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정·재생대신 (2013.1.14)	(찬성?) 각국이 관세 철폐를 예외로 양보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협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자료 : 닛케이신문(2013.1.15.)에서 정리

- 자민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 반대파 세력이 증가, 특히 농림 관련 의원을 중심으로 TPP 반대파들은 1월내에 대규모 집회를 열고 아베 정부에 압력을 가할 계획
- 농림 관련 의원들로 구성된 ‘TPP 참가의 철회를 요구하는 회’에는 초임 의원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증가하여 200명을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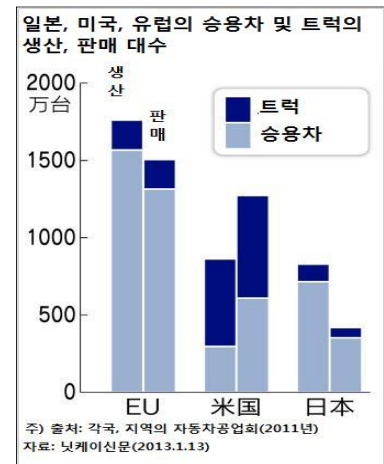
* '12년 말 중의원 선거에서 농협 그룹이 TPP 반대조건으로 추천한 후보자 중 약 170명이 당선

- 이시바 시게루 간사장도 공약에 반하지 않은 경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

□ 미국 내의 상황

○ 미국도 내심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한 장치를 고민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업계가 일본의 TPP 참가에 반대 입장

- 미국에도 자동차, 설탕 등 보호무역 성역이 있으므로 일본이 이 분야를 공략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음
- 미국 승용차 관세는 2.5%이지만 소형 트럭은 25%로 매우 높아, 디트로이트지역은 미국 하원 의원들에게 일본의 협상 참가를 반대해 줄 것을 건의



<참고자료>

닛케이신문(2013.1.6/12/13/15/16)